

선진 영유아보육교육정책(ECEC)의 현황 파악 출장복명서

1 출장 개요

□ 과제명: 서비스산업 발전방향과 일자리 창출방안 모색에 대한 연구

□ 출장자: 김인경 연구위원, 임영주 연구원 (공공경제연구부)

□ 주요 출장장소: 네덜란드, 노르웨이

1) 네덜란드

- Belangenvereniging van Ouders in de Kinderopvang(BOinK, 영유아보육교육 기관 이용 학부모단체), Utrecht
- Cit of Amsterdam(교육과 및 보육과), Amsterdam
- Ministry of Education and Social Affairs (교육부 및 사회고용부), Den Haag
- Kohnstamm Institute(교육, 육아 및 아동 복지 분야 연구소), Amsterdam

2) 노르웨이

- Ministry of Education and Research (교육연구부), Oslo
- 이우현 (톤스버그 시 소속 공립유치원 교사), Tønsberg
- Tønsberg rådhuset (톤스버그 시청), Tønsberg

□ 출장기간: 2019년 1월 20일(일) ~ 2019년 1월 27일(일)

2 출장 목적

□ 양질의 영유아보육교육정책 서비스를 제공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가 무엇이며 어떻게 설계되어 있는지 파악하여 정책적 시사점 도출

□ 선진 영유아보육교육정책의 구체적 현황 파악을 통해, 보고서로 작성 시 해외사례 연구 자료로 활용

3 세부 일정

일자	시간	주요일정 및 면담자	비고
1월 20일 (일)	▪ 00:55 ~04:30	인천공항 출발 → 네덜란드 도착	* 항공편: KE5925
1월 21일 (월)	▪ 10:00 ~12:00	- BOinK 면담 (1차) * 장소: BOinK 사무실 * 면담자: Gjalt Jellesma	* BOinK는 네덜란드 영 유아 기관이용 학부모 단체
	▪ 12:30 ~13:30	- 암스테르담 시청 공무원 점심 간담회 * 장소: Cafe Dauphine * 면담자: Anita Blom, Jan-Willem Sluiskens, Gjalt Jellesma	
	▪ 15:30 ~18:00	- 네덜란드 중앙부처 자문관 면담 * 장소: 교육부 * 면담자: Ruud Nauts, Reina Kloosterman	
1월 22일 (화)	▪ 10:00 ~11:00	- BOinK 면담 (2차) 및 점심 간담회 * 장소: 암스테르담 시내 * 면담자: Gjalt Jellesma	
	▪ 13:00 ~14:00	- De Kleine Weerd - Ulaa 유치원 방문 및 면담 * 면담자: Sally Fritzsche	
	▪ 16:00 ~17:30	- 영유아보육교육 학자 면담 * 장소: Kohnstamm Institute * 면담자: Iris Bollen, Ruben Fukkink	* Kohnstamm Institute는 암스테르담 대학교(UVA) 산하 교육, 육아 및 아동 복지 분야 연구소
1월 23일 (수)	▪ 10:00 ~11:55	네덜란드 출발 → 노르웨이 도착	* 항공편: KL1143
1월 24일 (목)	▪ 10:00 ~11:30	- 노르웨이 교육연구부 자문관 면담 * 장소: 교육연구부 * 면담자: Tove Mogstad Slinde	
1월 25일 (금)	▪ 10:00 ~14:00	- 노르웨이 톤스버그 시 공립유치원 교 사 면담 및 점심 간담회 * 장소: 톤스버그 시내 * 면담자: 이우현	
	▪ 14:00 ~15:40	- 노르웨이 톤스버그 시청 면담 * 장소: 시청사 내 * 면담자: Anita Schjelderup	
1월 26일 (토)	▪ 17:00 ~19:00	노르웨이 출발 → 네덜란드 도착(경유)	* 항공편: KL1148
	▪ 21:10	네덜란드 출발 →	
1월 27일 (일)	~15:30	인천공항 도착	* 항공편: KE5926

4 네덜란드 면담 내용

가. Belangenvereniging van Ouders in de Kinderopvang(BOinK, 학부모단체) (설립 2005)

<면담자>

❖ Mr. Gjalt Jellesma (Chairman)

- BOinK는 영유아보육교육기관 이용 학부모단체이며 세부 역할은 다음과 같음
 - 학부모에게 학부모 협의회 참여를 권장하고 확산시켜, 학부모의 법적 의무와 학부모 위원회가 있는 것이 유용하다는 것을 안내함
 - 학부모에게 보육법에 포함되어 있는 권리, 의무에 대한 정보를 제공
 - 학부모 및 학부모 위원회에 보육규정, 품질, 가격 및 보육관련 재정을 안내 (브로셔, 교육, 뉴스레터, 잡지 및 소셜 미디어, 웹사이트를 통해 정보 제공)
 - 불만 및 분쟁에 대한 지원과 조언 제공
 - 보육 분야에서 부모의 이익 대변을 하고 있음. 정기적으로 사회고용부, 시청과 같은 국가 및 지자체 정부기관과의 면담(매 6주에 1회), 보육분야 연구소, 소비자 협회 등과 같은 유관 기관 대표와의 회의를 진행하고 있음

나. City of Amsterdam (암스테르담 시청)

<면담자>

❖ Ms. Anita Blom (Head, Dept. of Childcare)

❖ Mr. Jan-Willem Sluiskens (Head, Dept. of Education)

❖ Mr. Gjalt Jellesma (Chairman, BOinK)

- kinderopvang, kinderdagverblijf, peuterspeelzaal의 개념
 - kinderopvang은 0~12세 아동 대상 보육(childcare)을 의미하며 부모의 노동 시장 참여 지원을 위해 만들어 짐
 - kinderdagverblijf는 0~4세 영유아를 대상으로 기관 중심의 서비스 제공을 하는 것을 의미
 - peuterspeelzaal은 playgroup(놀이집단)을 의미하며 2019년 1월 부로 폐지되었음

□ 네덜란드의 여성 노동참여 현황

- 네덜란드 여성은 시간제 근로(주 30시간 미만 근무) 비율이 높으나, 채우는 정규직 고용형태에 상응함
- 네덜란드 여성의 육아휴직 사용 기간은 길지 않지만(노르웨이는 출산 후 1년 간 대부분의 여성이 육아휴직 사용), 시간제 근로를 통해 근로시간을 줄여 아이를 양육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있음

다. Ministry of Social Affairs and Education(사회고용부/교육·문화·과학부)

<면담자>

❖ Ms. Reina Kloosterman (Advisor, Ministry of Social Affairs)

❖ Mr. Ruud Nauts (Advisor, Ministry of Education, Culture and Science)

□ ECEC 정책체계

- 네덜란드의 0~4세 대상 정책은 사회고용부와 교육·문화·과학부 2개 부처로 이원화
- 네덜란드의 보육해당연령은 0~4세로 일반영유아 대상 정책은 **사회고용부** (Ministry of Social Affairs and Employment)에서 관장
 - 사회고용부는 Childcare allowance 재정을 각 지자체에 배분하고, 지자체는 해당 예산을 집행
- 저소득층을 포함한 취약계층(disadvantaged, targeted) 영유아 관련 정책은 **교육·문화·과학부**(Ministry of Education, Culture and Science)에서 관장
 - 이민자를 포함한 저소득층, 취약계층 자녀의 사회 통합 정책의 일환으로 영유아 대상 지원을 수행하고 있음
 - 기관에서는 이민자 가정 배경의 영유아의 네덜란드어 교육과 사회문화 적응을 위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

□ ECEC 비용 지원 기준

- 비용 지원 기준은 저소득층여부 및 부모의 취업여부임. 직장이 있는 부모의 일반영유아는 Childcare allowance를 제공받고, 무직/저소득층 영유아의 경우 지자체에서 지원 범위를 결정함

□ 기관 운영 시간

- 네덜란드의 ECEC 서비스는 대부분 민간에서 제공하고 있어, 운영시간은 기관 별로 상이(학부모 근로시간에 따른 기관이용 수요 반영)

□ 민간 기관의 설립 및 폐원

- 네덜란드에서 민간기관 설립 시 원장에 대한 자격조건은 특별히 없으나 교사(Staff)의 자격 조건 증빙을 비롯해, 법적으로 요구되는 질적 요건을 충족해야 함
- 네덜란드의 경우 민간기관의 폐원으로 인한 문제가 크게 대두된 적은 없었으며, 기관의 재정 상황이 질적 수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구조임

라. De Kleine Wereld – Juliana (유치원)

<면담자>

❖ Ms. Sally Fritzsche (Manager)

- 해당 유치원은 De Kleine Wereld 프랜차이즈에 소속되어 질 높은 ECEC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민간 기관임

□ 기관 내 연령 구분

- 부모의 철학에 따라 연령 혼합반이나 단일 연령반 중 택일해 영유아 배치
- 연령 혼합반의 경우 어린 연령의 영유아가 보다 높은 연령의 영유아로부터 배울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, 교사 배치 등 기관 운영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운용이 가능함
- 교사의 지도 하에 한 교실 내에 각 연령이 다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복층으로 구분된 활동 공간을 마련하고 있음



De Kleine Wereld - Juliana



영아 단일 연령반 교실



복층으로 공간이 구분된 연령 혼합반 교실



마. 영유아보육교육 학자 면담

<면담자>

- ❖ Ms. Iris Bollen (Researcher, Kohnstamm Institute)
- ❖ Mr. Ruben Fukkink (Professor, University of Amsterdam)

□ ECEC 민간기관 질 관리 기제

- 네덜란드는 민간기관 설립을 위한 진입장벽은 없으나, 국가 차원의 기관 평가가 있으며 감독관(Inspector)이 기관을 감독하고 있음. 모든 기관에 적용되는 법적 기준은 동일하며, 위반에 대한 패널티는 상당히 높은 편임
- ITERS-R, ECCERS-R 척도를 사용하여 전체 아동발달을 평가하고 질을 측정함
- 교사들은 자가평가도구를 통해 보육의 질적인 수준을 제고하고 있으며, 도구는 ECEC 관련 이해관계자들이 함께 장기간의 협의를 통해 작성함. 정부가 워크샵 등을 통해 배포함

5 노르웨이 면담 내용

가. Ministry of Education and Research (교육연구부)

<면담자>

❖ Ms. Tove Mogstad Slinde(Advisor, Ministry of Education and Research)

□ ECEC 정책 체계

- 노르웨이의 ECEC 정책은 일원화 되어 교육연구부에서 관할하고 있으며, 보육·교육 기관은 ‘유치원’으로 통칭함
- 1975년 유치원 법(Kindergarten Act) 제정되어, 각 지자체(municipalities)에서 해당 지역 내 유치원을 관할할 책임이 있으며, 운영을 위한 지침(Guidance)을 제공해야 함
 - 노르웨이에는 약 400여개의 지자체가 있으며, 지자체별 운영 지침을 마련하고 있음

□ ECEC 비용 지원

- 가구 소득에서 보육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의 상한은 6%로 두고 있음
- 특히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타겟을 설정해 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며, 저소득 가정일 경우 일주일에 20시간에 해당하는 기관 이용 지원 혜택이 있음
- 난민과 이주민 자녀의 사회통합을 위해 ECEC 참여 확대를 하고자 함

□ 공·사립 기관 간 교사 처우 차이

- 노르웨이의 공·사립 기관 간 교사 임금은 큰 차이가 없음

나. 톤스버그 시 공립유치원 교사 면담

<면담자>

❖ 이우현 (톤스버그 시 소속 공립유치원 교사)

□ 노르웨이 유치원의 기관 유형

- **Ordinær barnehage(일반 유치원)**은 가정 유치원, 열린 유치원을 제외한 모든 유치원을 의미함. 기관 내 원장, 원감, 담임이 있으며, 10명 이상의 재원아가 있어 규모가 큰 편임
- **Familiebarnehage(가정 유치원)**은 가정에서 5명 이하로 운영(영아 - 3~4명, 3세 이상 - 5명 이상)
- **Åpen barnehage(오픈 유치원)**은 일반 유치원에 부모 철학에 의해 보내지 않거나, 유치원 대기리스트에 있거나, 기타 이유로 유치원에 보낼 수 없을 경우 이용하는 공간임. 시에서 운영하며, 시청 직원이 교육 프로그램, 활동, 놀이를 주도함.
- 톤스버그 시 오픈 유치원은 무료로 제공되며, 따로 신청할 필요 없이 월·수 9~3시 사이에 원하는 시간에 찾아와 참여 가능함. 부모 간 소통의 장으로 활용하기도 함

□ 기관 운영 시간

- 톤스버그 시 유치원은 일반적으로 오전 7시~오후 5시 운영하며, 오후 4시 30분 전에 대부분의 아동이 하원함. 이는 부모의 근로 시간이 대부분 오전 8시~오후 4시이며, 유연근무 사용이 자유로워 부모가 번갈아 등·하원을 할 수 있기 때문임
- 운영시간은 지자체 별로 상이, 대체로 공·사립 유치원 간 차이는 없음

다. 톤스버그 시청 관계자 면담

<면담자>

❖ Anita Schjelderup (총괄리더, 톤스버그 시 유아교육정책 총괄)

□ 입소 우선 순위

- 공·사립 유치원에 공통 적용되는 입소 우선 1순위는 장애/특수교육이 필요한 영유아, 2순위는 가정 폭력 등의 문제로 개입이 필요한 아동임
- 공립유치원의 입소 우선 3순위는 나이가 많은 영유아, 4순위는 남매가 같은 기관에 다니고 있는 영유아임
- 사립유치원의 경우 재단의 소유권의 일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 등 기관에 따라 상이

□ 부모의 기관 선호

- 부모는 위치와 교육의 질을 주로 확인하며, 가족적인 분위기의 규모가 작은 유치원을 선호하는 경우도 있음. 부모의 철학에 따라 특수성이 있는 유치원을 선호하기도 함 (자연 유치원, 해양유치원 등)

